

II

기후변화 시대의 상황적 존재들과 상상의 공동체

최 은 주
건국대학교

신기후체제의 디스토피아에서 ‘우리’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에 의하면, 기후 문제는 지정학적 이슈의 핵심이며 불의·불평등의 문제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¹⁾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에 들어섰다는 생각 없이는 불평등의 폭증, 탈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글로벌화에 대한 비판을 이해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국가의 보호로 귀환하려는 광적인 갈망으로 잘못 알려진 갈망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기후체제는 라투르가 그의 저서 『가이아 마주하기: 신기후체제에 대한 여덟 개 강의』(Face à Gaïa. Huit conférences sur le Nouveau Régime Climatique 2015)에서 제안한 용어로, 지질학자들이 홀로세(Holocene)라고 정의한 최근최대빙하기(Last Glacial Maximum)가 끝난 이후 다소 안정적인 상황의 구기후체제(Older Climate Regime)가 있었지만, 인류가 화석 연료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게 됨에 따라 인간이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불안정한 신기후체제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전례 없는 규모의 생태적 변환에 접어들었으며 기후변화를 비롯한 각종 위기가 지구에 엄습했다.

모든 개인이 한 국가의 국민이며 오직 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배타적 국민 구성은 근대 국민국가 모델이 지닌 특징이다. 이 모델은 낸시 제이 Nancy Jay가 지적한 'A/비A'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로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A/비A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는 모든 변화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사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안적인 사회질서의 형태(제3의 가능성)를 사고할 수 없다.²⁾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한 질서에 대한 대안이 무질서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누적된 분쟁, 경제 실패, 기후 변화에 떠밀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기후 변화와 이주 논쟁은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닌 양립하는 문제이지만 기후 변화가 아직 다룰 줄 모르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라는 점에서 미래의 모든 이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³⁾

이 글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에 따른 디스토피아, 즉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극대화하여 형상화한 가상 세계를 그린 존 란체스터 John Lanchester의 『벽 The Wall, 2019』에서 '대격변 the Change'으로 불리는 시대 이후의(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사회와 그 사회 안팎의 상황적 존재들에 대해 고찰한다. 이때 '상황적'이라는 말은 고정된 자기 자리가 없다는 의미이며, 얼마든지 박탈될 가능성은 있지만 제자리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는 사람들에게 주로 붙여진다. 이 존재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비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인류가 발생시킨 기후 변화는 종으로서 인간 존재 자체가 빚어낸 의도치 않은 결과이며, 상이한 인간 집단들이 더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음에도 궁극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모든 인간 행동이 이루어낸 총체적 결과물⁴⁾이라는 점에서 해수면이 상승한 바다와 그로 인한 홍수는 『벽』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벽』은 영국 브리튼 섬에 요새를 구축하고 벽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즉 스스로 고립되는 선택을 하면서 난민을 막고,

자신들의 영토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에는 어떠한 구호 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브렉시트^{Brexit}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다. 영국은 2016년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확정하고, 2020년 1월 정식 탈퇴했다.

라투르의 말을 빌려, 신기후체제는 오랫동안 국경을 휩쓸었고, 우리를 모든 풍랑에 노출시켰으며,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벽도 침입자들을 막지 못할 것이다.⁵⁾ 두 다리로 걸어서 넘어오는 난민에 맞서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다고 해도, 다른 형태의 이동, 즉 기후·침식·공해·자원고갈·서식지 파괴 등과 같이 국가로 한정 지을 수 없고, 형태도 없는 이동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끈질기게도 “위협에 대해 항상 내부와 외부, 고유한 것과 생소한 것, 개별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의 경계에 머문다.”⁶⁾ 이때의 ‘우리’는 유럽이지만 꼭 유럽일 필요는 없다. 꼭 유럽일 필요가 없지만, 유럽적인 것, 영국적인 것은, 로베르토 에스포지토^{Roberto Esposito}에 따르면, ‘우리’라는 개념을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절단하는 면역화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내부로 데려간다.”⁷⁾ ‘우리’는 “타자와 원치 않고 뜻하지 않은 접촉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가면’이나 ‘갑옷’을 사용”⁸⁾함으로써 다시금 유럽적인 것, 영국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아미타브 고시^{Amitav Ghosh}가 말하는 ‘우리’와 라투르가 말하는 ‘우리’는 다르다. “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감시당하고 판단되어왔음을 본의 아니게 알아차린”⁹⁾ 인도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와 “모든 민족을 침략한”¹⁰⁾ 유럽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출발점이 다른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가난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탄소 경제로 인한 부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그리고 『벽』의 주인공 조셉 카바나^{Joseph Kavanagh}의 출발 또한 어찌면 다르다. ‘카바나’는 아일랜드의 성^성으로, 어원은 ‘잘생겼다’는 뜻의 Caomhánach에서 유래하며, 소설 전체에서 조셉 카바나는 조셉이 아니라 카바나로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른다. 이미 제국과 다중이라는 타자¹¹⁾의 생산 구도에서 처음부터 영국이 아닌

아일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카바나가 원천적으로 영국적인 ‘우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

소설의 배경인 브리튼 섬은 지구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추위가 극에 달했고 해안선 2,000마일을 잃었지만, 여전히 구불구불한 녹색 언덕과 펌_{Pub}, 대중교통, 휴가가 잔존하여 대격변 이전의 풍경을 드문드문 드러내는 지구 유일한 곳이다. 반드시 영국일 필요는 없지만, 전지구적 차원의 난민과 기후 변화를 소재로 택한 『벽』조차 세계의 다른 지역과 벽을 쌓은 곳을 바로 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란체스터는 다른 작가들처럼 영국에, 따라서 고유의 영국식 개념에 특권을 부여하는 데 동참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¹²⁾ 그밖에 디스토피아적 절망에 대항하는 더 나은 존재 방식을 탐구하는 대신 단지 느낌의 디스토피아적 구조를 재현할 뿐이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구축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비판도 받는다.¹³⁾ 그러나 『벽』을 주목할 이유는 충분하다. 종말론적 세계의 원인인 환경 문제를 잘 그려냈기 때문이 아니다. 기후 변화를 다루는 상상력에서는 오히려 단순하며, 결과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대신 ‘벽’이라는 엄격하게 통제된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전히 국가주의적 공동체 이념을 깊숙이 심어놓았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동체 이념은 그 대립물인 벽을 부서뜨리려는 커녕 오히려 높이 세우는 것으로 고착되며, 벽을 지키는 단조로운 삶이지만 경계병들로 하여금 강렬한 목적의식을 갖게 만드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벽』에 대해 에리카 와그너^{Erica Wagner}가 던지는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 *A dystopia for whom?*”¹⁴⁾라는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빙하와 해빙 감소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구 기온 상승에 의한 기후

이변은 식량문제로 이어져 마침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이재이주 상황을 가속화시킨다.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홈랜드는 사라지고, ‘빈자^{the Poor}’에게 이주의 위기는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벽』의 상황은 현재 삶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다.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설은 모든 것이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정상성’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¹⁵⁾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고, 정치가들은 똑같은 연설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아이폰과 비슷한 장치를 갖고 있다. 현실과 소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벽 이쪽에 존재하는 자들의 피부 속에는 시민임을 나타내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으나 벽 밖의 적으로 표상되는 ‘타자들^{Others}’에게는 그와 같은 칩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세대에게 ‘나쁜’ 현실과 ‘더 나쁜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써만 표상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대격변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불안한 현재는 위급한 미래로 향하고 있다. 이 속에서 타자는 일별이 가능하지 않은 전체로서 등장할 뿐이며, 그들에게는 얼굴도 목소리도 없다.

벽은 상징적이다. 경계이자 국경이며, 내부와 바깥을 전제한다. 벽은 위반이 일어나는 한계가 아니라 횡단되는 통과와 경로를 생산한다. 벽은 동시에 물질적이다. 그러한 벽은 세울 수도, 1989년 베를린에서처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란체스터의 『벽』에서 벽 또한 그런 상징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에서 예외가 아니다.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자 압박한 환경 붕괴에 대한 불안, 안전과 안보에 대한 보편적인 꿈, 제한된 천연자원과 인간에 대한 환대 같은 아이디어들이 모여드는 중심 이미지가 바로 이 거대하고 구체적인 벽이다.¹⁶⁾ 공식 명칭이 ‘국립 해안 방어 체계 NCDS, National Coastal Defence Structure’인 거대한 벽은 “낮고 긴 콘크리트 홍물”¹⁷⁾이다. 콘크리트는 그 유효 성분이 석회석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이다.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약 90퍼센트를 차지하는 규산염도 들어가며, 점토도 필요하다. 1,450도의 높은

온도를 가하면 규산칼슘이 만들어지는데, 물과 철근 등이 합쳐지면 콘크리트가 생겨난다. 소설에서 벽은 “가파르고 미끄러운”¹⁸⁾ 콘크리트 계단으로 묘사되며, “춥고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절망적인 곳”¹⁹⁾으로 비친다. 벽의 소재가 콘크리트 물질이라는 점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과다 탄소 배출에 따른 대기 중 온실가스 수준을 높인 인간 활동의 결과물인 동시에,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에 의한 디스토피아가 도래하였음에도 다른 대안 물질을 찾지 못한 인류의 무능함을 드러낸다.

『벽』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세상, 벽을 지키는 복무 속으로 모든 젊은 세대를 내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인간 활동이 원인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풍경이 달라졌으며, 체계 또한 바뀌었다. 부모 세대가 향유했던 해변은 없어지고 오로지 바다만 있으며 그곳을 지키기 위한 벽이 중요한 세상이 된 것이다. 존 어리^{John Urry}에 의하면, 해변은 소비의 장소 중 가장 상징적인 곳이다.²⁰⁾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중간 공간’으로써 매혹과 욕망의 장소라는 것이다. 경관의 장소, 특히 노동이 아닌 여가의 장소라는 것도 특이점이다. 20세기 초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북미 부유층에게 ‘엄청난 정동^{immense affect}’의 장소이자 지상의 낙원이며 과잉의 장소였던 해변은 공장과 직장, 가정에 대한 상징적 ‘타자’²¹⁾의 의미였다. 정동은 무의식적이지만 육체적이며 외재적으로 나타나는 기분, 흥분, 몸짓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즉 신체 위에 드러나는 느낌이자 반응으로, 자기 인식 전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이다. 해변에서 햇볕은 거의 별거벗은 몸을 어루만지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정동에 의해 해변은 전 세계적으로 욕망의 대상이 된다.

『벽』에서 ‘우리’ 세계에서는 사라진 해변과 대조적으로 벽은 ‘우리’와 ‘타자’가 나뉘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곳이다. 공교롭게도 대문자 ‘O’로 된 ‘Others’는 타자가 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와 명료하게 나누려는 의도를 내비친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벽을 침투하고자 하는

타자를 상대하는 영국인이자 영국 내에서 부모 세대와 갈라진 자식 세대로, 대격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다. 대격변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대격변이 고립된 단독 사건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라는 특별한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때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한순간에 벌어진 것 같은 사건처럼 느낀다. 따라서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그때는 부모 세대가 있었고, 이제는 ‘우리’ 세대가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대격변은 이전과 이후를 가를 수 없는 현재형이다. ‘우리’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로 단일하지 않은 사회적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 세계에는 엘리트 Elite, 경계병 Defender/공군 Flight/경비대 Guard, 도우미 Help 계층이 존재한다. 경계병은 벽을 지키며, 공군에는 항공기를 타는 소수의 사람과 그보다 더 많은 드론 조종사가 소속돼 있다. 정식 명칭이 해안 경비대 Coast Guard인 경비대는 크게 중거리용 함선과 단거리용 함선을 보유하고 있다. 벽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병은 추방될 수 있으나 공군과 경비대는 추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공군이나 경비대의 입대는 훨씬 어렵다. 공군에 입대하려면 생체 측정 테스트를 여러 번 통과해야 하며, 경비대에 입대하는 데는 선박·해양 관련 분야에 가족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우리’ 세계의 분화된 사회체계에서 경계병은 적이 벽을 넘으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그것만이 중요한 사실이다. 적이 마이크로칩을 구해서 잠입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사병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당연히 적과 엘리트 계층에겐 중차대한 일이지만 경계병에게 달아난 적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다. ‘우리’ 세계는 계층화된 사회로, 그것을 작동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먼저다. 시스템이 없다면 개별 인간 주체의 힘은 보잘것없을 것이다.²²⁾ 주체가 모여서 경이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들을 포함하는 시스템, 특히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이들의 관념 또는 정보를 이동시키거나 다양한 사물을 이동

시키는 시스템 덕이다. 그런 이유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해 개별 인간은 별다른 인지적 숙고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벽』이 재현하는 디스토피아조차 다른 인간들로부터 벽을 지키는 방식의 정치적인 경계와 정체성이 부동산성/이동성_{im/mobility}에 의해 형성된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즉 디스토피아라고 하지만 이전의 삶과 달라졌다 해도 해변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그 삶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삶에 훨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족해지고 그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츰 볼 수 없고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사라지는 그런 것들 말이다. 『벽』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말은 지역·도시·국가·세계의 체계들이 인종·성별·계층·국적·성별에 따라 다른, 규율된 이동을 생성²³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취약한 ‘다른’ 집단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타자들’로 칭해지는 사람들의 이동이 카바나를 비롯한 ‘우리’에게는 파괴와 위협을 낳는다는 점에서 다시금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진다.

경계병은 처음 의무기간 이후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복무 연장이 가능하다. 카바나는 복무 연장을 자신에게 달린 일로,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고 그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지 안다며, 장교로 훈련받을 기회가 생기면 대학에 가고, 엘리트 계층에 진입하여 항공기를 타고 날아가 회담이나 대담 또는 회의 등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엘리트 계층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는 동시에 선망했다. 벽을 넘어온 적을 물리치고 훈장을 받은 후, 그리고 히파_{Hifa}와 함께 번식자_{Breeders}, 즉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는 스스로 엘리트 계층이 되기를 가장 바랐다. 엘리트들은 다른 엘리트 계층 사람들과의 회의를 위해 항공기로 이동할 수 있다. 항공 연료가 부족해서 이제는 극소수만이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사회조차 일련의 규제하고 통제하는 규칙·관습·

제도 전체인 체계화된 네트워크는 이동성^{mobility}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세계에서조차도 권력은 사람들의 차별적 이동 권리를 명백히 드러낸다. 특권 계층은 개인의 이동 능력과 이동 잠재력과는 별개의 더 많은 이동의 편리를 즐기고, 더 다양한 종류의 이동성에 접근한다.²⁴⁾ 이것은 이동 권리인데, 에스포지토는 ‘권리’가 언제나 누군가의 것, 즉 어떤 소유의 대상인 동시에 방식이고, 내용인 동시에 형식이라고 말한다.²⁵⁾ 원천적인 단계에서 무언가 ‘이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다’ 식으로 정립된다는 것이다. 권리는 남에게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힘을 지닌 자의 것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며, 따라서 권리는 주관적인 소유물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소유물은 이전되거나 전달되지 않으며 물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고 단지 ‘취할’ 수 있을 뿐이다.²⁶⁾

계층과 달리 식량의 패턴은 과거에 머물지 않은 것들이다. 벽에서 복무하는 첫날 아침, 카바나는 포리지^{porridge}, 즉オート밀을 걸쭉하게 끓인 음식을 먹고, 간식 시간이 되어서는 에너지바를 먹는다. 포리지와 단백질류에 따뜻한 음료로 배를 채우는 것이 전부다. 벽에는 상존하는 추위가 있으며, 20분을 걸어간 초소는 더욱 춥다. 그의 ‘위치’는 벽이다. 몸은 다채로운 감각을 통해 다른 몸, 물건, 물리 세계와 조우하는데,²⁷⁾ 그가 먹는 음식물, 일과를 보내는 벽, 추위가 몸을 가로지르며 그의 사회적 삶을 생산하고 윤곽을 만든다. 그렇게 그가 짊어진 책임과 하루와 생각이 모두 벽과 관련된 것이며, 그의 미래가 벽에서 벌어지는 일에 달려 있다. 카바나와 주위 사람들의 인생에서 벽은 그만큼 지배적이다.

영국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끊고, 빈곤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이용하는 특권을 가진 백인 서구 사회의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선택된 생존자들(영국인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한다. 이때 보호의 대상은 ‘공동’이다. 물론 영국으로 제한한 공동이다. 위협으로부터 공동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유한 의무가 요구되는데, 주체성의

탈고유화를 통해 의무가 공동의 혜택으로 변환된다.²⁸⁾ 카바나를 비롯한 경계병들은 법적 의무에 귀속되어 있으나 그들의 권리는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차원의 것이다. 젊은 세대는 남녀 모두 2년간 벽 방어의 복무 의무가 있으며, 벽을 지키기 위한 인구를 충원하기 위해 아이를 낳기로 선택한 번식자들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세상을 파괴했기에 인구 증감을 조절할 권리는 없지만, 국가는 벽을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끔찍하게 변한 탓에 번식을 꺼린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류를 전부 다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대부분 기아와 수난을 겪으며 사망과 절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아와 수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겪고 있다.

여기, 지금 이미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우리가 전부 먹이고 돌볼 수는 없다; 여기, 지금 인간들 대부분은 굶주리고 익사하고 죽어가는 절박한 상태이다; 그러니 어떻게 감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기 이 나라에서만 굶은 기아와 익사를 겪지 않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는 거의 다 겪고 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감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²⁹⁾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벽을 침입하였다가 검거된 타자는 안락사, 바다 추방, 도우미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라고 했지만, 개인의 고유한 선택은 없다. 세계는 이미 그와 같이 체계화 되어 있었으며, 이 환경은 그 사회에 소속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평한 것 같지만 소속 또한 소유한 자, 달리 말해, 빼앗을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정해져 있다. 엘리트층의 이동 권리라는 것도 말하자면 타인의 부동성을 강제하는, 이동성 통제를 기반으로 한다.

상황적 존재들에게 공동체는 가능한가?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벽은 공간이라고 규정하기엔 모호한 해안가 없는 바다 위로 홍수를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만 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마도 영국인 이외의 기후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또한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기도 하다. 벽 위에서는 경계병들이 벽을 지키는 것 외에도 먹거나 잠을 잔다. 벽 200미터마다 서 있는 5만 병력이 수시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또 다른 5만 병력이 교대조로 대기 중이니까 10만 병력이 주야로 경계 근무를 선다. 2주일은 당번, 2주일은 비번이다. 경계병 중 절반은 벽을 떠나 휴가 중이거나 훈련 중이거나 2주일 교대 근무를 위해 대기 중이다. 따라서 20만 현역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 지원 인력과 보조 인력에 장교와 행정병을 더하고, 해안 경비대와 공군 및 해군에 병가를 낸 병력 등을 더하면, 벽을 방어하는 병력이 30만을 넘어선다. 모두가 예외 없이 벽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것이 규칙이다. 이들의 삶은 벽 이전과 벽 이후로 나뉘며, 친구들과 공통으로 벽을 경험했음에도 복무를 마친 친구들과 복무중인 친구 사이를 가르는 어떤 기류가 있는 것 같았다. 카바나는 벽이 “모두에게 같으면 서도 모두에게 달랐다”고 말한다.

이런 벽에 적과 한편인 사람들이 있다. 적과 한편인 내부의 적인 셈이다. 내부의 적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벽 밖의 타자들과 연대한다는 점에서 ‘우리’에 속하지만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적은 도덕이 상실되고 윤리가 결여된 짓을 하는 자들로, 연단에 오른 정치인인지 관료인지 모를 엘리트 계층의 젊은이는 그들을 ‘반역자’라 불렀다. 반역자는 벽을 넘는 데 성공한 적을 멀리 달아나도록 도와줄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들과 내통하면서 공격할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고 심지어, 칩을 얻도록 도와줄 방법, 벽을 넘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 사회 속으로 숨어들도록 도와줄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 편이면서,

적의 편인 사람들로 인해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욕망이 약화되는 느낌을 진단하는 『벽』은 디스토피아적 파문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보를 다르게 욕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³⁰⁾ 벽이 자연재해를 막기 위함이지 사람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현 사회체계에 반대한다. 타자들을 ‘우리’의 이해와 상상력을 속이는 “해독 불가능한 재앙의 징후들”³¹⁾로 여기는 이유도 결국 자국민 중심주의를 고수하는 안보 체계에 있는 것이다.

대격변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곳에서는 쉬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고, 상당수의 더 더운 지역에서는 대격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지형이 변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격변의 영향에서 도망친 남녀는 새 삶을 꾸리기 위해, 다투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기 위해, 자신과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 곳, 암반, 동굴, 우물, 오아시스를 찾고자 애를 쓰지만, 대격변은 끝나지 않았다. 보금자리는 쓸려갔고, 해수면은 더 높아졌고, 지표면은 뜨거워졌고, 농작물은 타 죽었고, 암반은 무너졌고, 우물은 말라 버렸다. 안전은 환상이었다. 그래서 불행한 자들은 다시 도망쳐야 한다. 초기 대격변 때처럼 도망치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상당한 수가, 위험할 정도의 수가 오고 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비교적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으나 이제 그런 시절은 다 갔다. 연단에 올랐던 엘리트가 들려준 이야기다. 금발에 반짝거리는 정장을 입은 그는 “벽이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여러분이 받은 훈련은 세계 최고”라면서, “여러분도 세계 최고이고 이 나라도 세계 최고”이니, “우리가 이겼고, 이기고, 이길 것이다”³²⁾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때의 ‘우리’ 또한 엄연히 구분되는 “흑백 논리만 있는, 규칙 아니면 무법천지였고, 벽과 타자, 항시 대기상태, 기대감, 오로지 성난 바다뿐이었다.”³³⁾

대격변은 ‘우리’ 세대가 부르는 이름이지만 카바나가 만난 도우미는 ‘쿠이쉬아^{Coo-ee-shee-a}’라는 ‘종말’을 뜻하는 스와힐리어^{Swahili}를 사용했다.

갑작스러운 죽음과 소멸 보다는 점진적인 변형과 어울리는 어휘 ‘대격변’이 카바나의 인지와 상상력을 형성한 만큼 벽 너머의 언어 ‘쿠이쉬아’는 카바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의 것이었다. 벽을 넘어왔다가 도우미가 된 그에게서 발음되는 ‘쿠이쉬아’는 그만큼 벽에 설정된 선, 구역과 일치하는 서구의 인식적, 상상적 가능성의 한계를 명시한다.³⁴ 카바나는 도우미의 삶이 어땠는지, 대격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 어떤 여행을 했는지, 어떻게 벽을 넘어왔는지, 타자들과 섞여 사는 것과 지금 도우미로 사는 건 어떤지 등을 연결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카바나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불타는 듯 뜨거운 모래밭, 머리 위로 뜬 거대한 노란빛 태양, 상처를 따갑게 하는 짠 바닷물, 버림받은 약자들, 유배와 상실이라는 쓴맛, 안전에 대한 갈망, 계속 불어 닥칠 극도의 절망과 슬픔이라고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상상력의 한계는 카바나뿐이 아니다. 도우미는 오로지 ‘패배한 자’이며, 경계병에게 상상 가능한 최종 목표는 ‘엘리트’가 되는 것이다.

3부 <바다>는 바다로 추방된 후의 카바나 일행을 조명한다. 벽을 침입한 적들을 전멸시키지 못한 ‘우리’ 측의 경계병들은 구명보트에 몇 주간의 식량과 함께 바다 한 가운데로 버려졌다. 카바나는 다른 사람들 처럼 원래부터 벽의 규칙을 알고 있었다. ‘타자가 벽을 넘어오면 나는 바다로 추방된다.’ 그러나 자신이 그 경험의 중심에 서자 그것의 부당함에 구역질이 났다. 추방된 동료들과 자신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으며, 오히려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친구들이 죽는 걸 지켜보았으며, 그 대가가 바다로의 추방이었다. 추방되는 과정은 절망으로 채워진다. 추방이 결정되면 한 사람씩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칩 제거 수술을 받는다. 생체 인식 ID 칩이 없으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 공황 상태, 탈출하고 싶은 욕구, 불가능한 탈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데 절대 불가능한 탈출,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끔찍하게 죽게 될 거라는 공포가 카바나를 감쌌다. 수면에서 겨우 몇 센티미터 높이의 작은 고무보트에 서게 되자 바다는 10미터 높이의 철제 갑판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 육지를 찾아 노를 저었으나 바람이 불어와 파도에 부딪히는가 하면, 히파는 이를 동안 뱃멀미에 시달렸다.

구명보트에는 벽을 넘어온 적을 막아내지 못한 카바나 일행뿐만 아니라 연단에서 연설을 했던 엘리트 계층의 초짜 정치인 제임스^{James}, 벽에 복무하던 경계병들을 배신한 대위가 있었다. 적 열여섯 명이 벽을 넘어 도망쳐서 병사 열여섯 명이 바다로 추방당했다. 카바나는 대위가 ‘타자’를 돕는 조력자 간 네트워크에 속했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었다. 대위 또한 과거에 벽을 침입한 ‘타자’였다. 그런데 바다로 함께 추방된 후 그가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너희 나라 사람 중 일부는 벽 방어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벽은 바닷물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인간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들 중 일부는 사람을 “도우미로 쓰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노예제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우미는 합법적인 사회 제도 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일부 권력층의 합의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강제적이다.

카바나 일행이 발견한 육지는 대격변 이후 세계 모든 해안가처럼 수면에서 수직으로 높이 솟아 있어 상륙할 곳이 없었다. 자칫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풍랑에 밀려 경사면에 부딪힐 게 뻔한 난파되기 좋은 섬이었다. 이곳은 과거 해변이 있었고, 완만한 둔덕이 있었고, 아마 물가엔 집도 몇 채 있었을 것이다. 발밑의 저 해저는 맨땅이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모두 물속에 잠겼다. 그러나 무풍지대의 고요하고 조용한 데가 있었으며, 그곳에 여러 척의 배들이 조용하게 떠 있었다. 항해용 보트 여덟 척과 물에 뜨는 뗏목 두 대를 엮어 만든 떠있는 공동체^{floating community}가 존재했던 것이다. 열여섯 명이 이룬 공동체는 계획된 게 아니라 사고와 우연의 연속에 의해 형성되었다. 카바나는 생각한다.

나는 타자들의 출신과 정체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에서 나고 자랐다. 그 모든 걸 무시하도록 길들었다. 타자는 그저 타자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타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더 이상 타자가 아닌 것 아닌가? 내가 타자이고 이들은 타자라면 우리는 타자가 아니라 그냥 새로 ‘우리_{Us}’가 되는 거다. 혼란스럽다.³⁵⁾

벽 밖의 얼굴 없는 타자들은 카바나가 합류하여 그들과 새로운 ‘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얼굴을 가지며, 몸으로, 목소리로 부각된다. 타자들, 그리고 ‘그 밖의 타자들’로 이루어진 떠있는 공동체에는 아주 먼 지역의 억양에 비영어권 언어의 리듬이 섞인 여자가 있는가 하면, 민족이 다른 어린 소녀 셋이 있었으며 언어도 영어가 아니었다. 그들은 카바나 일행을 받아들이는 투표에서 모두 찬성하면서 그들 무리에서 카바나 일행과 ‘우리’가 되었다. 그들은, 아니 ‘우리’는 상륙하진 못했으나 평온한 가운데에 안전했다.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살만한 삶이었다. 물론 이 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살 곳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레푸기아^{Refugia}³⁶⁾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벽은 ‘안전’과 ‘보호’를 모토로 외부의 침략을 막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 떠있는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타자가 침략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종류의 것이며, 따라서 벽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패를 경계병들의 과오로 돌리고 그들을 추방하기만 하면, 벽은 다시금 온전한 ‘안전’과 ‘보호’의 온상이 된다는 식이다. 벽은 물리적이지만 규제, 법률, 사법 체계, 관료 체제 전부이기도 하다. 추방 시스템에 의한 벽 방어가 결함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엘리트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떠있는 공동체는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지만 개인들 간에 기능적인 차원의 분리를 통한 질서를 유지한다. 업무는 각자에게 할 만한 일들이

맡겨진다. 그것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제안→수락의 과정을 거친다. 카바나는 잠수해서 해초며, 조개류를 채취했다. 이곳도 폭풍을 피하지는 못한다. 비바람이 사선으로 불어 시야가 막혔고 폭풍우는 45도 각도로 따갑게 쏟아졌으며 파도는 밑에서 연속적으로 뗏목을 때렸다. 카바나 생각에는 공동체가 폭풍우를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재난 수준으로 가지는 않고, 결국 폭풍은 지나갔다. 그들이 정박해 있는 섬이 폭풍의 기세를 약화시킨 것 같았다. 카바나는 공동체가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과거에 자연을 저 너머의 것에 놓고 경계 지었던 것과 달리,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함께-되기_{becoming-with}’가 펼쳐진 것이다.

그렇게 안심하는 순간, 폭풍이 사라진 방향에서 해적선이 침입해왔으며, 카바나 일행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떠있는 공동체는 자연재해가 아닌, 같은 인간에 의해 마침내 와해된다. 그들 모두 죽거나 흩어졌으며, 카바나와 히파는 다시금 망망대해에 떠 있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마침내 닿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결합 자체의 벽보다 훨씬 폐쇄적인 석유 플랫폼이다. 그 폐쇄성은 외부인에게는 닫힌 것이지만 내부인에게는 안전과 보호의 새로운 대안적 성격을 내비친다. 그동안 어떤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던 은둔자가 마침내 카바나와 히파에게 사다리를 내려 내부로 들인다는 설정은 카바나와 히파에게는 행운이자 특권이며, 은둔자에게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도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각성이라는 점에서 인정할만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다수의 떠있는 공동체가 아닌, 제한적으로 선택 받은 소수에게만 열린, 그리고 다시 닫힌 석유 플랫폼은 다름 아닌 “분리주의 유토피아”³⁷⁾의 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석유 또는 가스 시설이었던 최후의 정착지는 유일하게 카바나와 히파의 안전을 보장함에도, 이러한 설정은 상상력의 한계로 보인다. 벽이 콘크리트였다면, 해저에 매장된 석유를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석유 플랫폼은 아연, 크롬, 니켈 금속을 도금한 강철로, 벽의 물질성처럼 밀도가 높아 침투가 어렵다. 또한 이 속에서 발견한 석유램프는 카바나와 히파를 또 하나의 특권층으로 만든다. 벽에서 엘리트층은 고에너지 화석연료를 통해 항공 여행이 가능한 특권층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카바나가 동경하는 대상이었던 바, 카바나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석유에 접근 가능해지자 감격한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살아있는 세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적게 끼칠 지속 가능한 이동성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도,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은 불균등 이동은 불평등한 이동 체제와 생활 패턴을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 그것이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우리’로 갈라져 나온 카바나지만 벽의 체제에 도전하기보다 제3의 장소, 즉 운 좋게 은신처를 제공받고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믿으며 안도하는 데 이른다. 대격변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부모 세대를 비난하던 그조차 여전히 진행 중인, 따라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닌 대격변을 목도할 뿐 에너지 사용의 기회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의 상상력은 부모 세대를 부정하는 것에 그칠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그것은 소설의 한계이자 ‘우리’의 한계이다.

상상력의 위기와 개방의 역량

오늘날 환경이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적 사고와 심지어 중세적 사고에서처럼 우주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적합한 위치와 경계를 가리키는 가시적인 살아있는 우주는 아니지만 ‘돌려쓰는 몸soma perihon’으로 간주되었다.³⁸⁾ 큰 몸이 작은 몸을 포함하고 유지하였으며, 경계란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부여하고 지지하며 보호하는 장치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Umwelt³⁹⁾이라는

용어가 발명되었던 19세기에 시작되어 오늘날에야 비로소 정점에 이른 이론적 전회(theoretical turn)에 의해 뒤집혔는데, system, 즉 체계가 체계 고유의 환경을 정하고, 체계 자체가 분화하면서 무엇이 되었던 환경 경계 저편에 있는 것으로 구성해낸 것이다.⁴⁰⁾ 환경은 그렇게 경계 저편에서 타자가 되었으며, 인간은 비인간(동물, 식물, 사물)의 활기에 대해서는 몰랐거나 잊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던 나라들에서 대대적인 탈식민화가 진행된 시기”⁴¹⁾의 인간 활동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비인간의 활기 또한 부각시키는 ‘대가속(Great Acceleration, ‘거대한 가속’이라고도 불린다)’의 개념은 중요하다.

환경 문제는,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주장에 따르면, 단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과오나 불충분한 윤리적 책임감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체계와도 연관된다.⁴²⁾ 법체계는 환경 입법을 발전시켰고, 정치 체계는 생태학적 개혁을 위한 정치적 플랫폼을 출현시켰다. 경제체계는 생태학적 비용을 가격의 언어로 번역하고 소비자들이 녹색 제품에 대해 지불하는 방법을 따랐다. 교육체계는 생태학적 문제를 커리큘럼에 통합한 반면, 학문은 생태학적으로 지향하는 하위 학문(그중에서도 후발자로 환경 문학 연구)을 생산했다.⁴³⁾ 이러한 변화는 종종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전성기 환경 운동이 조장하고자 했던 생태학적 혁명처럼 멀리 떨어진 곳까지는 어떤 반향도 남지 못했다는 비판⁴⁴⁾을 받았다. 그러나 기후 위기가 문제임을 드러내고 문제성으로 사회가 속속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회의 환경 자체가 유발한 결과들로부터 다시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⁴⁵⁾ 이에 따라 환경 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해졌으며, 사회가 해수면의 상승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다시 말해 사회체계가 어떻게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고시는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하는 출판물이 논픽션과 관련되거나 소설로

다루어지는 경우 공상과학이라는 장르로 치부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기후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고, 따라서 상상력의 위기라는 것이다.⁴⁶⁾ 추방당한 카바나와 히파의 경우처럼 석유 플랫폼에서 ‘그들’만의 은신처를 찾는 것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상상력의 위기는 곧바로 현실에서 나타난다. 『벽』에서 홍수를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하여 기후 난민들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목적을 갖는 벽은 미국 뉴욕의 맨해튼 해안 지역에 세운 5미터 높이, 4킬로미터 길이의 방벽과 유사하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하고 나서 뉴욕시는 이스트 25번가에서 몽고메리 스트리트에 이르는 맨해튼의 이스트사이드에서 해안 폭풍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위험을 줄일 것을 목표로 ‘동부 해안 복원력(East Side Coastal Resiliency, ESCR)’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방벽은 홍수는 막고 사람은 막지 않는 방파제를 쌓는다는 것, 그리고 방벽 소재가 생태 친화적 콘크리트임을 널리 알렸다. 또한 ESCR 프로젝트에 포함된 이스트 리버 파크(East River Park)에 대해 높이를 2.4미터 가량 올리고, 식물은 바다의 염수와 강수량 증가, 강풍 등에 견딜 수 있는 종으로 대체하여 심겠다고 발표했다.⁴⁷⁾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1,000여 그루의 나무를 베고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공원을 메우는 것이 포함됐다. 벌목과 공원 매립, 기존 야생동물의 보존과 재배치의 환경적 영향은 철저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⁴⁸⁾ 2013년 방벽 건설 발표 시점에 해안 지역은 인공제방을 쌓는 것보다 사구, 산호초, 해안 식생을 가꾸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자연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개념을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라 하는데, 자연재해 이후 인간의 방어 선택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⁴⁹⁾ 즉 ‘세계에 대한 감각’이 요청되는데, 믹 스미스(Mick Smith)에 의하면, 세계에 대한 감각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반응 능력에 개방되게 하고, 이것은 윤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⁵⁰⁾ 생태적

상상력이 계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인데, 비인간과 “함께-되기”, 그리고 비인간의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와 “세계 짓기^{worlding}”⁵¹⁾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세^{Anthropocene}, 즉 대규모 태풍, 산성화된 바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와 같은 인간 이상의(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집합체와 불안하고 부정형의 함께-되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⁵²⁾

『벽』의 결말에서 카바나와 히파가 도착한 석유 플랫폼 대신 결코 닿을 수 없는 섬 주변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떠있는 공동체’는 영구적인 영토 정착, 민족국가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불)가능한 대안으로 상상해볼 수 있다. 영토로 직결되는 소속 또는 소유와는 동떨어진, 섬 주변에만 임시 정착할 수 있는 ‘떠있는 공동체’는 각자가 주체로서 감지하는 감성적인 공통의 소속 의식을 지니며, 동시에 모든 생명체의 반응에 열려있다. 에스포지토는 『코무니타스: 공동체의 기원과 운명^{Communitas. Origine e destino della comunità, 1998}』의 서문에서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세의 기반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각자가 주체로서 감지하는 - 감성적이거나 전통적인 ‘공통의 소속 의식’이라면, 사회관계의 일면은 ‘공동체화’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공동체 개념을 언급한다. 소속 혹은 소유란 무엇보다 영토와 직결되는 것으로, 영토를 규정하는 것은 ‘점유’의 범주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소유’의 모체가 된다는 것인데,⁵³⁾ 인간에게는 발 디딜 땅이 필요하며, 절대적인 정서적 안정을 준다는 점에서 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해도 -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대안이다- 이는 여전히 인간중심적인 주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코무니타스^{communitas}의 어원은 고유의 특성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의무사항이나 빛을 공통의 요소로 지녔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며, 무언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덜’ 있어서, 혹은 어떤 결핍이 계기가 되어 모인 것이다.⁵⁴⁾ 결합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공동

체를 위해 ‘선사(膳賜)’, 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25장으로 구성된 『벽』에서 20, 21장에만 출현하는 ‘떠있는 공동체’야말로 결함 있는 인간들의 공동체의 대표성을 띤다. 나아가 인간이 일반적으로 지구와 관계 맺은 결과가 『벽』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바, 인간은 지구의 생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결코 끊어낼 수 없으며, 따라서 생태 공동체를 위한 책무가 있다.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최은주, 「존 란체스터의 『벽』에 나타난 대격변 시대의 사회체계와 상황적 존재들」 『영어권문화연구』 16(1),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2023.

〈저자소개〉

최 은 주 (건국대학교)

건국대 학술연구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지원으로 강제이동인구의 거처에 대한 언어·공간·건축 연구(2017~2020)를 했으며, 「경계 횡단의 언어와 환대 (불)가능한 장소」(2018) 등의 논문이 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지원으로 세계 강제이동인구의 이동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관련 논문으로 「비인간의 난민화와 레푸기아(Refúgia) - 나딘 고디머의 「최고의 사파리」와 크루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2022), 「난민·이주 쟁점에서 어휘전이 현상 연구에 대한 고찰」(2024) 등이 있다.